



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



산학일체형 도제학교, 앞으로 다가올 큰 미래를 바라보자

최○준 / 창○기○공업고등학교

드림레터 수기전을 쓰기 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. 모든 사람들은 ‘꿈’을 그저 하나의 단어로 생각한다. 막연하게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다 보면 이루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더 크다. 그래서 나는 항상 꿈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그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.

창○기○공업고등학교의 첫 등교일은 2014년 6월 20일이었다. 내가 관심 있어 하던 전공과목(기계)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기뻐다.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창○기○공업고등학교(컴퓨터응용기계과)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리 조금은 늦은 발걸음이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가고 있다.

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(현장에서 1:1 기술명장에게 교육받는 제도)’에 컴퓨터응용기계과가 선정되었다고 했다. 도제식 교육을 하는 회사를 미리 견학하는 시간도 주어졌다. 그리고 나를 선택한 회사는 (주)대○○크였다.

회사의 정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, 무서운 카리스마의 부장님께서 나를 맞아주셨고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주셨다. 부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“회사에 있는 모든 일을 해보는 것이 너 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다.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 내기 바란다.”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았다.

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’를 진행할 때는 회사 가느라 부족한 수업시간을 방과 후 수업으로 채워나가야 했다. 인문과목보다 전공과목에 중점을 두어 ‘기술능력중심사회’로 만들기 위하여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.

한 주는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하고, 한 주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의 의지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아 지치기도 했다.

이처럼 회사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. 하지만 나는 이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.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자격증 공부가 회사에서 실무로 직접 배워보니 조금 더 익숙해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. 그리고 도제식 과정을 마무리하면 국가직무능력(NCS)기반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하나 취득할 수도 있다. 도제식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도 지원해주며 폴리텍대학으로 갈 수 있는 제도 또한 준비 중이다. 이것이 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’의 최고 장점인 거 같다.

앞으로 후배들이 나처럼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고,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‘산학일체형 도제학교’로 인해서 남들보다 빠른 취업의 방향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.



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



너를 응원해

차○경 학부모

사랑하는 아들에게

아들아, 엄마는 너를 낳으면서부터 늘 한 가지만 소망했어.

우리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...

행복한 삶이란 우리 아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,

원하는 일이란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.

그래서 엄마의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고, 엄마의 경험을 너에게 옮기지 않고,

엄마의 믿음을 너에게 심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.

그런데 쉽지 않더라.

어찌 보면 한 마디로 엄마의 욕심과 싸우는 일이었는데,

엄마의 욕심이 단순히 욕심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했고,

엄마의 욕심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고,

엄마의 욕심이 너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잔인한 진실까지도 받아들여야 했어.

아이를 키우는 일은, 부모가 되는 일은,

그렇게 다시 자신과 싸우는 일인 것 같더라.

무엇을 하고 싶고, 무엇을 원한다고 강력히 말한 적은 없지만,

너는 엄마가 너의 선택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부드럽지만 정확히 “싫어” 혹은 “좋아”를 했어.

네가 갈 모든 길에 모든 선택은 너의 몫이야.

좋고, 하고 싶은 것도 선택이지만 싫고, 하기 싫은 것 또한 선택이지.

아들아, 10년 동안 장래희망을 적는 칸에 적혀 있는 너의 꿈은 언제나 화가였지.

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냐는 물음에 산 중턱에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그리는 화가라고 답했지.

너의 꿈을 응원해.

같이 걸어가지는 못하지만 네가 걸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줄게.

씩씩하고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걸어 가보자.

행복한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될 거야.

너에 대한 엄마의 단 하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

이만 쓸게.

매일 아침 ○이의 미소로 행복한 엄마가